

“아파트 공터에 이웃사랑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쓰레기장이 텃밭으로... 노대동 LH송화마을8단지

쓰레기 무단 투기 막으려 텃밭 개간 토마토·상추·오이 등 올 첫 수확 어르신들 무료할 달래고 이웃 정 나눴

“아파트 단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던 쓰레기도 사라지고, 적절한 노년의 삶에 새로운 활력소도 생겼어요.”

광주시 남구 노대동 LH송화마을8단지(관리소장 고미란) 입주주민들은 최근 아파트 텃밭에서 올해 첫 수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송화마을8단지 텃밭 부지(16㎡·약 5평)는 애초 아파트 건물 뒤편 자투리 공터였다. 지난 2018년 12월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방치된 공터에는 생활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쓰레기 투척 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붙이고 매번 청소를 해도 쓰레기 무단 투기는 끊이지 않았다.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주민들 간담회를 열고 공터를 텃밭으로 개간하기로 결정했다.

행복주택이라는 특성상 전체 세대의 10% 상당은 독거노인이라는 점에서 관리사무소와 입주주민들은 독거노인 7가구를 추천해 이들에게 텃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들은 올해 4월 상추와 고추, 깻잎, 오이, 토마토 등을 파종해 각자 ‘잠자리 텃밭’, ‘무당벌레 텃밭’ 등 큰충 이름의 땅 팻말을 세워 재배 작물을 관리했다.

잡초를 뽑고 밭을 일구면서 텃밭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고, 수확한 작물도 나누며 이웃의 정도 쌓을 수 있었다.

고미란 관리소장은 “가을에는 늙은 호박을 재배



광주시 남구 노대동 LH송화마을8단지 주민들이 아파트 건물 뒤편에 조성한 텃밭에서 고추를 심고 있다. (LH송화마을8단지 제공)

해 단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호박죽 잔치를 벌일 수 있는 행복주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교육청 신입 부교육감에 류혜숙 전 울산시 부교육감 임명

광주시교육청이 7년 만에 여성 부교육감을 맞이했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류혜숙(53·사진) 전 울산시 부교육감을 임명했다.

류 부교육감은 영광 출신으로 연세대 교육학과와 교육대학원, 미국 코넬대 교육학박사를 거쳐 1990년 행정고시 33회를 통해 임용됐다. 공직에 발을 디딘 후 교육부 서기관과 서울대 기획담당관, 교육부 산하협력과장,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류 부교육감은 2016년 7월 울산시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뒤 이듬해 5월 김복남 당시 교육감이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교육감 권한대행에 올라 1년7개월동안 교육감 역할을 대신 수행했다.

한편 오승현 현 광주시 부교육감은 부산시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대성 기자 bigkim@



아시아문화원 임직원, 의료진에 감사 ‘덕분에 챌린지’



아시아문화원 이기표 원장과 임직원들은 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극복에 애쓰는 의료진과 방역인력에 대한 고마움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작해 SNS에 게재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번 아시아문화원 임직원들의 릴레이 캠페인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목을 받아 동참했으며 다음 릴레이주자로 광주디자인진흥원과 광주시립미술관을 지목했다.

이기표 아시아문화원장은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시아문화원도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적십자봉사원 나현애씨, 레드크로스 기빙 클럽 가입

적십자봉사원 나현애(오른쪽)씨가 7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흥석) 레드크로스 기빙 클럽(Giving Club)에 가입하고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지역에 57호 가입자다.

레드크로스 기빙 클럽은 조손가정을 지원하는 100인 100만원 기부 릴레이 프로그램이다. 기부금은 ‘조손가정, 오손도손 희망심기 캠페인’에 전액 사용된다.

나씨는 2010년 적십자봉사원에 입회한 뒤 9년 동안 지역 취약계층 결연활동, 목욕봉사, 무료급식봉사 등을 해 왔다.

나씨는 “적십자봉사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길은 나눔이라고 생각했다”며 “내 나눔



이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성경찰서 김덕형 경위 ‘전국 최우수 보안경찰’ 영예

장성경찰서 김덕형 경위가 경찰청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보안경찰’에 선정됐다.

7일 장성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안경찰의 업무 전문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난해 ‘최우수 보안경찰’ 제도를 도입, 반기별로 전국에서 3명을 선발해 포상과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상자에는 김 경위를 비롯해 서울경찰청 소속 2명이 최종 선정됐다. 지방경찰청에서는 김 경위가 유일하다.

김 경위는 지난 2017년 전남경찰청에서 장성경찰서로 전입, 보안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탈북민 범죄예방 등 신문기사 투고 총 92회, 장성경찰서 특수사색인 안보소식지 ‘평화장성365’ 총 9회 발행, 독창적인 탈북민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 경찰 협력단체와 협업한 탈북민 보호 등 보안경찰로서 우수한 감성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찬란한 내 인생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 40 지구촌 뉴스	45 곤대인턴(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 55 UHD 숨터	00 출사표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매이션 런닝맨 스페셜 45 스푸키즈 3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치치핑핑 55 뽀뽀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고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영상앨범 산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아생영정			00 뉴스브리핑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제보자들	00 장애인외 탈북집 다큐 스페셜 마음으로 보는 세상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신비아파트:고스트볼 X의 탄생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30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오매! 전라도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민선 7기 특별대담	50 위험한 약속	20 찬란한 내 인생	00 닥터 365 05 고향건강문庫 남도에 살어리랏다
8	30 기막힌 유산	30 제보자들	50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출사표	30 미쓰리는 알고 있다 <첫 회>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더 라이브	4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45 라디오스타	00 트롯신이 떴다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5 더 캡처	15 M드레모다 힐합걸 45 출발! 비디오 여행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7:45 피피루 안전특공대
07:15 출동! 슈퍼왕스	12:30 EBS 마스터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뽀로	13:00 EBS 다큐프라임	19:00 형사 가제트
07:45 로보카 폴리	13:50 EBS 초대석	19:30 최고! 후기심착지
08:00 땡땡땡 유치원	14:40 마사와 곰	19:45 자이언트 팽TV
08:30 냉장고 나라, 코코몽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20: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해와 해와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일수록 재미있는 지구>
09:00 픽시	15:10 꼬마버스 타요(재)	21:30 한국기행 <슬기로운 여름 나기 3부 경주 해녀가 사는 법>
09:30 페파 피그	15:25 레인보우 루비	21:50 EBS 다큐프라임 <슬기로운 여름 나기 3부 경주 해녀가 사는 법>
09:3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40 뽀뽀뽀 뽀로로	22:45 극한직업
10:30 한국기행(재)	16:10 픽시(재)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23:45 EBS 명강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0 땡땡땡 유치원(재)	
12:00 EBS 정오뉴스	17:00 EBS 뉴스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7:20 개구쟁이 스머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8일(음 5월 18일 壬子)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48년생 총동원 되어야 성사를 기대할 수 있다. 60년생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72년생 옛일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다. 84년생 일시적인 총동 심리에서 기인한다면 오래가지 못 할 것이다. 96년생 즐겁고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50</p>	<p>午</p> <p>42년생 인식을 달리한다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4년생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66년생 진중하게 장교한 다음에 대범하게 넘어가는 것이 백 번 낫다. 78년생 특수한 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어서 변화무쌍하다. 90년생 오랫동안 시일을 끌어왔던 일이 시원하게 해결되리라. 02년생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13, 94</p>
<p>丑</p> <p>37년생 희소식을 듣게 된다. 49년생 지금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킨다. 61년생 체면이나 허욕을 버리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73년생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다. 85년생 안정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니라. 97년생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8, 75</p>	<p>未</p> <p>31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용히 대세를 관망하라. 43년생 생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5년생 뜻을 굽히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때다. 67년생 정밀하고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낫다. 79년생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91년생 눈앞의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편협해지기 쉽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3, 88</p>
<p>寅</p> <p>38년생 집착은 발목을 잡을 뿐이다. 50년생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니 기다려 보자. 62년생 이미 완전하게 결정한 판국이니 전혀 여지를 두지 말라. 74년생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하리라. 86년생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98년생 적기에 적용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3, 86</p>	<p>申</p> <p>32년생 외형에 현혹된다보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 44년생 합리성을 좇는다면 만사가 무탈할 것이다. 56년생 완전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68년생 험들더라도 잘 만 처리한다면 밝은 미래를 기약한다. 80년생 남감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느니라. 92년생 장애물이 제거 되거나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는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33, 54</p>
<p>卯</p> <p>39년생 조상의 음덕을 입고 있으니 정성을 다한다면 행운이 따르리라. 51년생 장담하고 나면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것이다. 63년생 단순한 비교는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75년생 최적의 상태이니 계속 진행하라. 87년생 대화의 부족은 오해를 낳는다. 99년생 경쟁력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58</p>	<p>酉</p> <p>33년생 대세에 따름이 백 번 나은 것이다. 45년생 연수가 모이니 충분히 알고 개입해야 한다. 57년생 가까운 이에게 꼭 경쟁해야 할 일이 있다. 69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81년생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의외의 행운으로 이어진다. 93년생 적절하게 처리해야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7, 78</p>
<p>辰</p> <p>40년생 방법까지 고려한다면 금상첨화이다. 52년생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64년생 김방으로 가다가 잡혔으니 사소한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76년생 실행되고 있는 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88년생 근간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00년생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9, 65</p>	<p>戌</p> <p>34년생 공전의 판국을 이끌만한 찬스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다. 46년생 성공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다. 58년생 기다려왔던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70년생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82년생 잠자코 있는 편이 더 낫다. 94년생 매우 궁극해왔던 것이 명백히 드러나서 속 시원하겠다. 행운의 숫자 : 36, 55</p>
<p>巳</p> <p>41년생 상대의 언행에서 충분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 53년생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 65년생 복이 지나치면 도리어 재앙이 생기는 법이다. 77년생 간만의 차이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89년생 난관이 많아 보인다. 01년생 인정 했을 때 개선의 여지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2, 76</p>	<p>亥</p> <p>35년생 단순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생경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느니라. 47년생 문제되지 않을 것이니 기탄없이 진행하자. 59년생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71년생 사랑을 받는다는 것과 미덕은 별개이다. 83년생 알려져 있는 것이 실제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니라. 95년생 대부분 양호하니 약간만 손질하면 된다. 행운의 숫자 : 24, 87</p>